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공회라 김미경 김종선 김준구 김준화 김한나 김형국 박혜진 방석태 배세영 윤영준 이미지
이송이 이영순 이지은 이형욱 조규래 지상건 허봉선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봉석 김광호 김민형 김준구 김지한 박복순 박부웅 박성대 박춘자 방석태 안금자 윤병호 윤정호
이경순 이복현 이상희 이영순 이육남 이정순 이형욱 임형문 지옥본 최기훈 허봉선 루디아여전도회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병을 김준구 김중익 김춘화 김현구 박복례 박부웅 박순자 박춘자 백경자 백남실 손명화
오영주 이경자 이미지 이찬호 이향교 전순봉 채영엽 최기훈 하세연 허봉선 무 명 정세미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김명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방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욱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미지 이상이 이소은 이송애 이육남
임승주 정옥순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김민혁 무 명 양일석 이노을 이설아 정승현

📍 월정현금

박춘자

주간 성경연구

36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레위기 15장 1절 ~ 18절			
월요일	레위기 15장 19절 ~ 33절	목요일	레위기 16장 23절 ~ 34절	
화요일	레위기 16장 1절 ~ 10절	금요일	시 편 119편 1절 ~ 16절	
수요일	레위기 16장 11절 ~ 22절	토요일	시 편 119편 17절 ~ 32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김제호	
	전도사	이필레	
	존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찬양대	지휘자	할렐 루야 : 김한나 호산 나 : 김안나 시은 · 에덴 : 최원지 앤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회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철 이성욱 미남 : 김다니엘 태국 : 최윤희회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욱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맥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화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9. 01. 주일 예배 설교

마가복음 10장 46-5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설교자 이진우 목사
-----------------	------------	------------

예수님이 어리고에 이르렀을 때, 어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반면 어리고의 길가에 앉아 있던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다 분명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 나사렛 예수
- 본문 46-47절입니다. “**그들이 어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디한 우리와 함께 어리고에 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고 했습니다. 어리고 하디한 무리는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은 겨우 30여 가구, 100-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시골 산동네였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시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빈민층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산 높은 곳에 위치했으며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출신지인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여 다른 사람과 혼동하지 않게 했던 것이 당시에 관례였 습니다. 마치 가뭇민 유다와 같이 흔한 이름 앞에는 그의 출신 고향을 함께 불렀고 이는 당시의 관례를 따라 그 사람의 출신지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단순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 말 속에 경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같은 조그마한 시골 산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냐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만 보더라도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고 하신 말씀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년 양보하더라도 어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정도로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리고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많은 우리가 따르는 이유도 그저 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구경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사나, 마술사 혹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고 사람들은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 다. 이것이 어리고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보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 수는 없습니 다. 우리도 예수님을 역사 속 위인 중 한 사람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진면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현대 사회로 들어와 철학화 되고 이론화 되고 그냥 남들 위로하는 신리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되고 복 받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알고는 있으나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며,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며, 바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믿으며 고백합니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다윗의 자손 예수
- 반면에 예수님을 전혀 다른 호칭으로 불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라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본문 46-47절입니다. “**그들이 어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디한 우리와 함께 어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고 했습니다. 바디매오는 자신의 분명한 이름도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바디매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매오의 아들” 이란 뜻입니다. 그는 변변한 이름도 없이 그저 나면서부터 맹인 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 다. 아마 그날도 바디매오는 구걸하기 위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이 흥성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이었습니 다. 하지만 바디매오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습니다. 혈루병을 고침 받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 몰래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어리고 사람들과 다른 호칭으로 불렀습니 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습니다. **본문 47절을 다시 한 번 읽어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 낼 구원자에게만 합당한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놀랄게도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간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짊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연박을 주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바디매오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며, 눈을 뜨게 하시므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본문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그 부르심 속에 바디매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행동에서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병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어도 세사의 유혹이 필박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며 믿음의 자리로 예수를 찾아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 또한 두 가지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인으로, 위대한 인물로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믿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참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5 - 36

2019. 09. 0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2019년 하반기 사랑의 주일

[1부] 오전 7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42(통395)장 다 같 이 (Praise) 너 시험을 당해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유 현 호 집 사 (Prayer) [3부] 최 기 훈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11장 1~10절 [신약p.73] 이 영 미 권 사 [2부]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신약p.308]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진선메]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1,3부] 왕이신 예수님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교회, 거룩한 공동체 김 제 호 목 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538(통327)장 다 같 이 (Praise)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윤 조 훈 장 로
묵 도	할렐루아찬양대
성 시	시편 36편 9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406(통464)장 다 같 이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기 도	박 종 삼 집 사
성 경 봉 독	시편 94편 12~23절 (구약 p870) 사 회 자
찬 양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악인에게서 지켜 주시는 하나님 이 진 우 목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430(통456)장 다 같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정계속권사] 양 영 옥 권 사
성 경 봉 독	요한일서 4장 1~3절[신약p.391] 인 도 자
설 교	어떻게 이단을 경계할 수 있나요?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 광고
- [사랑의 주일]
오늘(8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2019년도 하반기 사랑의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추석연휴기간 예배안내]
추석연휴기간 새벽기도, 수요기도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연휴기간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요기도회]
명절연휴로 이번 주(9/13) 금요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전도부 노방전도]
이번 주(9/12) 노방전도는 추석연휴로 모이지 않습니다.
 - [온가족예배]
다음 주일(15일)은 온가족예배로 합니다. 1, 3부 예배만 있으며 주일학교 예배 및 중식은 없습니다. 15일 남전도회월례회 및 교육위원회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 [서울남노회 영등포시활회]
서울남노회 영등포시활 정기회가 9월 16일(월) 오전11시 예수사랑교회(조근일목사 사무)에서 있습니다.
 - [소망부 개학]
소망부가 21일 토요일 10시30분에 개학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물]
이연재 집사, 차숙정 집사 가정에서 크리스털 소강대상을 헌물 하셨습니다.
 - [9월 행사 안내]
9월 5일(목) 전도부 하반기 노방전도시작
9월 8일(주일) 사랑의 주일
9월 15일(주일) 온가족예배
9월 21일(토) 소망부 개학
9월 22일(주일) 루디아여전도회 헌신예배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여전도회 월례회(3부예배후/본당)	

◎ 환영합니다

- 19-20 이정자 성도 (고척9/사라여전도회) 강순여 성도 인도

◎ 교우소식

- 차욱자 권사 한양대학교병원 입원 치료
 - 조옥자 권사 한사랑정형외과 402호실 입원 치료
 - 정세미 선교사 선한목자병원 212호실 입원 치료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정소
이번주	유은자 권사	이승예 권사	천세력 장로 염영분 권사/ 천성현 집사 고유림 집사	최상길 집사	민음2 부친 목동 일산	한나 여전도회
떡	천성현 집사, 고유림 집사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말 천하는 돌 감사).					
다음주	김유민 어린이	신유민 학생	온가족 예배	박종삼 집사		드보라 여전도회

9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35주(1일)	장윤주 집사	김병을 장로	이승예 권사	윤영준 장로	장윤주 집사	백남실 권사
	36주(8일)	유현호 집사	최기훈 장로	이영미 권사	윤조훈 장로	박종삼 집사	양영옥 권사
	37주(15일)	홍정훈 집사	배경철 장로	성미영 권사	온가족예배		정계속 권사
	38주(22일)	김종진 집사	임만순 장로	곽정순 권사	배경철 장로	이승예 권사	최효자 권사
	39주(29일)	김형국 집사	박권제 장로	박복순 권사	강영성 장로	홍정훈 집사	이경자 권사
	예배안내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